

포교 · 신행 소식

풍경소리 2학기 명상특강 개강

명상과 심신치유 등 다양한 분야를 접목한 강좌가 열린다. 지하철 풍경소리(대표 해자)는 9월부터 명상문화 보급을 위한 2학기 강좌를 개최한다.

강좌는 △스스로 하는 몸 치유법을 배우는 '조현의 몸치유 교실'(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풍경소리 화가인 박준수 화백의 '마음그리기 교실' '미술 생초보교실'(매주 오전 10시 30분/오후 7시) △나와 당신을 이해하는 동양의 지혜 '명상 에너지그램'(9월 4일개강,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등으로 꾸준하게 인기를 얻는 강좌들이다.

이밖에 풍경소리는 3개 강좌를 신설했다. '송탁 스님의 담마 이야기'(8월 28일 개강)는 아비담마와 일상에서의 의식 작용을 심도있게 다루며, '임수연의 영어 & 인생 자신감 프로젝트'(9월 9일 개강)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강좌다.

또한 월 3회 무료특강을 진행하는 풍경소리는 9월 24일·10월 1·8일 '명상 마사지'라는 주제로 물리치료 및 중국 무술 전문가와 함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다. (02)736-5583

이은은 기자

조계사, 관음전 준공 · 관세음보살 점안

9월 5일 100주년기념관 2층 조성

신도들의 안정적인 기도 공간 확보를 위해 조성된 조계사(주지 도문) 관음전이 오는 9월 5일 오전 8시 30분 준공된다. 주불로 봉안된 관세음보살상 점안식도 함께 봉행된다.

조계사 측은 지난 2011년 인수한 삼오호텔을 전면 리모델링해 탄생한 도심포교 100주년 기념관 2층에 관음전을 조성했다. 약 200㎡(60여 평) 규모에 최대 150여 명이 동시에 법회를 봉안할 수 있는 관음전에는 주불인 관세음보살상과 99존 관세음보살상이 봉안됐다. 99존 관세음보살상은 과거, 현재, 미래에 상주하는 33관세음보살을 각각 상징한다.

또한 천수천안을 상징하는 1000개의 인등을 밝혀 신도들의 소원성취와 기도정진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맞은편 건물 2층에 위치한 관음전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름다리를 설치해 신도들의 편리를 최대한 배려했다.

이날 주불로 점안되는 관세음보살상을 비롯해 100기의 관세음보살상에는 모두 주지 도문 스님이 직접 사경한 100편의 반야심경과 5500여 신도들이 동참한 발원문이 복장물로 봉안됐다. 99존 관세음보살상 점안식은 오는 9월 7일 봉행된다.

신종일 기자

서울메트로법우회 9월 10일 음악회

서울시 지하철 1~4호선에서 근무하는 불자모인 '서울메트로법우회(회장 이종성)'는 9월 10일 오후 7시 서울메트로 교육문화회관 3층 대강당에서 '제1회 시민·고객과 함께하는 행복바라미 음악회'를 개최한다.

음악회는 무명초약단(남효석), 색소폰(이종섭), 벨리멘스(전소라), 사물놀이(현정석), 대금연주(이완영), 락가수(최

정훈), 보컬그룹(홍승목), 관문사금강불교합창단 등 메트로법우회 회원과 일반직원, 불교합창단 등이 출연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치게 된다.

서울메트로법우회는 "이번 음악회는 서울메트로의 안전을 기원할 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고객들과 하나 되고 법우회 회원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동국대 국제선센터 불교 영어강좌 진행

동국대 국제선센터(선원장 수불)는 '9월 불교영어강좌'를 진행한다.

9월 5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불립 스님이 탁남한 스님(The heart of the Buddha's Teaching)을 교재로 부처

님의 핵심 가르침을 알기 쉽게 영어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부터 강의한다.

일반인·학생 모두 신청가능하며 이메일(ysoo@dgu.edu)로 신청가능하다. (02)2260-3891

조계사, 지역주민과 '상생동력' 가동

마을공동체·협동조합 사업 시작

마을공동체가 최근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 삭막한 현실에 지친 사람들이 다시금 이웃 간 연대와 협동정신을 복원하기 위해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조계사(주지 도문)는 이런 추세에 맞춰 불교계 최초로 마을공동체사업과 협동조합을 운영해 지역주민과 상생을 도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계사가 운영하는 마인드 케어 평생교육원은 2012년 5월,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도시마을공동체 실무과정을 운영했다. 이 곳 수료생들과 종로 지역법회, 대한불교청년회 회원들 가운데 마을공동체 활동에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행복마을센터(센터장 서양희)'를 발족하고 서울시 종로구와 2012년 7월 업무협약을 계기로 마을공동체를 꾸려나가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그 첫 사업이 '수송공원 마을공동체·빌딩숲속 이웃사촌'으로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조계사 인근 수송공원에서 주민, 직장인, 상인을 대상으로 △마을 민속놀이 △나눔장터 △작은음악회 등을 정기적으로 열어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높지만 방치되고 있는 수송공원을 지속 관리해 테마가 있는 장소로 만들고, 더불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행복마을센터와 조계사 청년회는 매월 넷째 주 화요일 정오에 '마을 민속놀이'를 열어 옷놀이와 제기차기를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참가자들 가운데 우승팀에게는 상품을 증정해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직장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수송공원에 하나 둘 씩 모여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상상랜드'의 공연을 구경하고 있다. 이같이 조계사 행복마을센터는 인근 수송공원에서 주민,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민속놀이, 작은음악회, 정터 등을 정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조계사 '행복마을센터' 설립

2012년 7월 종로구와 업무협약

수송공원에서 장터·음악회 열어

봉제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오후 2시까지 생필품, 옷, 사무용품, 도서 등을 물물교환하거나 판매하는 '나눔 장터'도 운영한다. 이 밖에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1~2시에는 개인·단체로 신청을 받아 소규모 연주회 및 장기자랑을 개최한다.

서양희 센터장은 "수송길은 현재 많은 빌딩 속에 직장인들과 식당, 상가 등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제 수송공원은 이웃사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휴식처이자 나눔터가 되기 위해 조계사에서 작은 노력을 시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행복마을센터는 '행복마을 협동조합(이사장 도문)'을 설립하고 종로구 창신동 봉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재생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양희 센터장은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교류 하던 중 아이들 엄마가 대부분 봉제업에 종사한다는 걸 알게

됐다. 현재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서 생산 시설이 이전돼 창신동 일대가 가내수공업 수준으로 전락한 상태였고, 영세봉제업 종사자들은 일정한 지식을 갖춘 자를 고용할 수 주로 생활고를 겪는 상황"이라며 "장시간 노동으로 가정을 돌볼 시간이 부족해 육아시간은 턱없이 모자라고 청소년 탈선도 우려되며 부모의 건강상태가 위협받아 가정불안을 야기하는 등 여러 잠재적인 문제가 보였다"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행복마을 협동조합은 봉제업에 종사하는 창신동 주민들의 자활을 위해 종로구 이화동 벽화마을에 종로구로부터 전세금을 지원 받아 9월 말경 봉제작업소를 개소한다.

행복마을 협동조합은 초기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계사 승복과 버선 등을 제작해 물량을 소화하는 등 봉제류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유아나 어린이가 그린 그림을 디자이너가 리더칭해 인형으로 구현하는 '맞춤형 인형사업'을 비롯해 '외국인 관광객 판매상품'을 개발해 조계사 및 조계종 산하 사찰에 유통·판매할 예정이다. 이밖에 친환경 소재로 고급 여성숙옷 상품을 만들고 브랜드를 개발해 사업을 추진한다.

서양희 센터장은 "이번 사업들을 계기로 불교계가 지역 어르신과 청장년·여성·어린이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길 바란다"며 "협동조합의 수익금은 향후 비구니 스님이 아이들에게 '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비구니 스님을 대상으로 한 '술 교육지도자 양성과정'에 쓰고 싶다"고 말했다. (02)732-2183

이은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무봉 스님 반야심경 강의 CD 발매

춘천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서 진행된 내용 모아

춘천불교방송에서 인기리에 진행된 '무봉 스님의 반야심경 강의'가 CD (연외 위 의 청개구리)로 발매됐다.

<연외 위 의 청개구리>는 무봉 스님(홍천 무봉사 주지)이 춘천불교방송에서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11차례에 걸쳐 강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홍천 무봉사에서 도읍에서 연 발을 일구며 정진 중인 성목 무봉 스님은 1987년 화엄사에서 출가했다. 이후 해인정사 등 여러 선원에서 정진한 뒤 무봉사에서 수행 중에 있다.

스님은 춘천불교방송(영서지역 100.1MHz/영동지역 93.5MHz)에서 진행되는 '무명을 밝히고'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수행한 내용을 강의했다.

춘천불교방송 김충현 PD는 "강의 당시



강원지역 불자들의 문의전화량이 이어지고, CD 제작 요청이 빗발쳐 음반으로 제작하게 됐다"며 "스님의 강의는 기존 반야심경 강의와는 완전히 맥을 달리하는 새로운 강의로, 스님의 수행 내용이 오롯이 반영돼 스님만의 목소리를 가슴으로 내고 있다. 추후 반야심경 강의는 책으로도 제작해 불자들에게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봉 스님은 현재 춘천불교방송에서 매주 수·목·금 오후 4시 40분부터 20분간 '금강경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은은 기자

평화재단 2030 리더십 아카데미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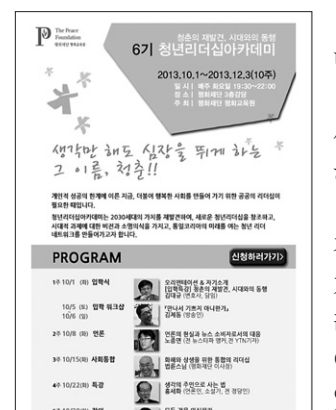
10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법륜 스님, 윤여준 등 강연

2030세대의 가치를 재발견해 새로운 청년리더십을 이끌어 내는 강좌가 열린다.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은 '제6기 청년리더십아카데미'를 10월 1일~12월 3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에서 진행한다.

방향을 청춘들을 위해 법륜 스님, 윤여준, 김제동, 박경철, 홍세화, 김진혁 등 10명의 멘토가 강의를 펼친다.

강좌가 열리는 첫째 날 김대규 변호사의 '청춘의 재발견, 시대와의 동행'을 시작으로 △법륜 스님의 '통일신라의 역사를 통해 배우는 리더십' △박원순 서울시장의 '나는 시적이다\_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윤여준 평화재단 교육원장의 '2012년 그 후, 다시 정치를 말하다'



당일의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 등이 진행된다. 모집은 20세부터 만 35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9월 1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02)6925-0522

이은은 기자

# 금강경요해 金剛經了解

## 반야, 깨달음의 지혜로 밝힌 금강반야바라밀경 요해

금강반야, 깨달음의 지혜와 경계가 이 책 안에 있다.

- ♣ 아녹다라삼막삼보리 깨달음을 향한 소중한 지침서
- ♣ 깨달음의 경계와 자기 점검
- ♣ 반야지혜로 밝힌 금강경의 지혜세계
- ♣ 깨달음 세계가 이 책 안에 있다.
- ♣ 아녹다라삼막삼보리는 수행 성취의 지혜가 아니다.
- ♣ 법인지(法印智)로 깨달음을 여는 길
- ♣ 무엇이 깨달음이며, 깨달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 ♣ 깨달음의 지혜 여래의 뜻을 밝힌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실제
- ♣ 일각요의(一覺了義)로 꿰뚫은 금강경요해
- ♣ 금강 실상과 부사의 공덕세계를 드러낸 지혜의 가르침
- ♣ 불지혜 최고최상의 깨달음, 아녹다라삼막삼보리 깨달음 경계는 어떠한가?
- ♣ 무위실상 일성원융 본심과 본각과 본성의 세계

이해하기 어려운 무위실상 불법과 아녹다라삼막삼보리 깨달음의 실체와 본심, 본성, 본각의 일성원융 법계를 금강경요해 강의의 인연으로 누구나 깊은 불법대해를 이해하고, 아녹다라삼막삼보리 깨달음에 들도록 금강반야바라밀 지혜와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수행 경계와 자중의 세계를 정성으로 세심히 살피어 깨달음과 불지혜를 향한 누구에게나 소중한 지혜의 가르침, 금강경요해 인연 공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상각 불지혜 청정한 믿음과 불법 실상과 청정본심을 깨달아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누구나 빠짐없이 성취하시기를 바라옵고, 자성불을 원만히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염원하며 발원합니다.

- 대구시 불국정토 세운스님 -

## 한글 법화경

### 一大事 因緣

이 세상(三界)이 편한함이 없는 것은 마치 불난집과 같으며, 많은 괴로움이 가득차서 가히 힘이 겹나고 두려우니라... 그 가운데 중생은 모두 바로 나의 아이들거늘... 오직 나 한 사람만이 능히 구원하고 보호 하느니라!

한글 법화경은 구마라집 한역 묘법연화경을 한글로 풀이한 경전이다. 법화경은 불성(佛性)인 참 생명의 영원실상을 명쾌하게 들어내어 인간의 상상을 뛰어 넘는 경전으로 대우주를 지배하는 최고의 힘 그 자체라 하겠다. 능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과 번뇌를 여의게한다. 우주와 같은 마음을 직시하고 법화경을 되풀이하여 읽고 쓰면 더욱 참맛이 우러나오는데 영원한 생명의 노래가 된다. 매일 읽고 쓰게된 공덕은 불가사한 현상의 기적으로 실제 일어나 신비의 체험은 다반사(茶飯事)며 삼세제를 부처님의 축복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은 실천적인 생활불교의 이정표이며 신앙적이라 엄밀실화가 가장 많음을 알게 될것이다.

중생이 본래 부처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라. 큰 법을 온세상에 널리 펴라. 법화 행자여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 법보시 주문은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송월스님 옮김 / 신국번역판 / 584쪽 / 정가 20,000원

신국판 / 456쪽 / 정가 25,000원

전국 서점, 인터넷 판매중!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mail: gubooks@naver.com